

백일기도 3월 1주 주간 복습 <오답률 상위 쏙쏙>

★ 오답률 상위 문항 10제(정답률 50% 미만) ★

회차	문항	영역	정답률
70회	14번	어휘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25%
70회	18번	독해(비문학) - 비판 추론	26%
71회	12번	어휘 - 한자 - 직업에 쓰이는	28%
67회	4번	이론 문법 - 의미론 - 의미 관계	33%
70회	12번	독해(비문학) - 내용확인 부정	34%
65회	4번	어휘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	37%
65회	2번	규정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39%
66회	16번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40%
71회	18번	독해(문학) - 고전문문 내용이해	45%
70회	7번	독해(비문학) - 배치	46%

70회 14번 [어휘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¹⁾

· 두 나라는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통/공동)’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됨.’이라는 의미이므로 예문의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예문에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짐.’이라는 의미의 ‘공통/공동’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共同):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짐.

(共通):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럿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됨.

[오답해설]

② (許容):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주로 각종 경기에서, 막아야 할 것을 막지 못하여 당함. 또는 그런 일.

③ (終熄):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④ (禮訪): 예를 갖추는 의미로 인사차 방문함.

71회 12번 [어휘 - 한자 - 직업에 쓰이는]²⁾

裁判(재판): 裁 재, 判 판

裁 재

[오답해설]

② 辯護士(변호사): 辯 말씀 변, 護 도울 호, 士 사

③ 判事(판사): 判 판, 事 사

④ 檢事(검사): 檢 검, 事 사

* 事 일 사

監事 , 刑事 , 知事 , 理事

* 士 선비 사

博士 , 碩士 , 學士 , 辯護士
, 義士 , 烈士 , 軍士 , 兵士 , 武士

* 師 스승 사

教師 , 講師 , 醫師 , 看護師
, 藥師 , 料理師 , 美容師

65회 4번 [어휘 - 문맥에 적절한 한자어]³⁾

① 그의 춤 솜씨는 신기에 恰似()하다

-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

② 일어나 보니 정오에 近似()하다

- 어떤 수치가 기준에 가깝거나 아주 비슷하다.

③ 나는 그와 친형제처럼 親密() / 親近() / 緊密()하다

-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

④ 둘은 臨迫()한 장래에 결혼할 사이이다.

- 어떤 때가 가까이 닥쳐오다.

시즌 1 4회 4번

밑줄 친 단어의 의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4)

- 너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고려의 대상이나 판단의 []으로/로 삼다.
- 일단 기반을 닦은 뒤에 다른 활동도 모색해 볼 것이다.
[]을/를 마련하다.
- 그 사람들과 친분을 다져 놓아라.
[]이나/나 터전 따위를 굳고 튼튼하게 하다.

- ① 模範 ② 準據 ③ 基礎 ④ 基準

시즌 1 5회 7번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중 문맥에 가장 적절한 것은?5)

교육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면서 개인의 행동을 (㉠) 하여 사회적 통합을 (㉡) 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교육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하게 (㉢) 된 조직·기능과 이질적 요소들의 통합을 위해 법과 공권력을 쓰기도 한다.

- ㉠ ㉡ ㉢ ㉠ ㉡ ㉢
- ① 統制 止揚 分離 ② 統制 志向 分化
- ③ 抑制 志向 分化 ④ 抑制 止揚 分化

시즌 1 6회 4번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6)

약호 기호는 규칙에 지배되는 의미 작용 체계이다.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메시지로 수신자에게 ㉠ 인식되려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공통의 약호 기호를 공유해야 한다.

- ① 許容 ② 容認 ③ 受容 ④ 認定

시즌 1 16회 3번

밑줄 친 단어에 대응되는 한자어가 아닌 것은?7)

- ① 구식인 부역을 신식으로 고쳤다. → 改良
- ② 잘 고치면 이 구두는 새것같이 되겠다. → 交換
- ③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 矯正
- ④ 그가 심경의 변화로 계획을 고친 것 같다. → 變更

시즌 1 17회 20번

㉠과 ㉡의 한자어 표기로 적절한 것은?8)

내가 자네에게 ㉠ 감정이 있을 리 있나? 자네가 나를 의심하니 없던 감정도 생기겠네그려. 인간이면 당연히 ㉡ 감정이 있겠지만 자네에게 특별한 불만은 없네.

- ㉠ ㉡ ㉠ ㉡
- ① 鑑定 感情 ② 憾情 減定
- ③ 感情 勘定 ④ 憾情 感情

시즌 2 44회 20번

㉠에 들어갈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9)

고유어	한자어
꾸미다	治粧하다/裝飾하다/造作하다
바꾸다	㉠
끝내다	完遂하다/完成하다/終結하다

- ① 交替하다 ② 交換하다
- ③ 代替하다 ④ 削除하다

시즌 2 45회 4번

밑줄 친 '말'의 의미 중,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 한자어는?10)

- 그는 재판에서 친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말했다.
- 타협할 생각도 없이 협상을 하자는 말입니까?
- 이게 아니다 싶으면 상대가 누구든 말을 한다.

- ① 直言 ② 言辯 ③ 妄言 ④ 證言

시즌 2 46회 16번

문맥에 어울리는 어휘로 옳지 않은 것은?11)

인간의 이성과 욕망 간의 (㉠ 圓滿한 / 懸隔한) 조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토대가 요구된다. 물질 기반이 없는 곳에서는 강한 집단이 나머지를 억압하게 된다. 극소수의 강한 집단이 사용하는 장치로 정치적 (㉡ 體制가 / 行態가) 동원되고, 도덕과 종교 등 다양한 이념이 동원되며, 그 배경으로서 금융주의를 (㉢ 支援하는 / 支持하는) 형이상학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윤리나 종교는 바로 이 같은 욕구를 절제시키고자 하는 금융주의적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해도 (㉣ 添言이 / 過言이) 아닐 것이다.

65회 2번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12)

‘더해 준다.’는 한글 맞춤법 제47항 다만의 규정에 따라 앞말이 (복합어/단일어)인 경우이므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더하다’는 부사 ‘더’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합성어/파생어)이다.

다만, 본용언의 활용형이 음절이므로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오답해설]

① ‘되여 가는 듯하다.’에서 ‘가는’은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고, ‘듯하다’는 의존 명사 ‘듯’에 접사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보조 용언이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규정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 ’가 원칙이고, ‘ ’가 허용된다.

모두의 약점 특강 중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	
원칙	허용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¹⁾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¹⁾
크룻을 깨뜨려 버렸다. ²⁾	크룻을 깨뜨려버렸다. ²⁾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 보조 용언 (원칙/허용) 추가 예시	
가다(진행)	
늦어 간다, 되어 간다 / 늦어간다, 되어간다	
가지다(보유)	
알아 가지고 간다 / 알아가지고 간다	
나다(종결)	
겪어 냈다, 견뎠다 / 겪어냈다, 견뎠다	
내다(종결)	
이겨 낸다, 참아 냈다 / 이겨낸다, 참아냈다	
놓다(보유)	
열어 놓다, 적어 놓다 / 열어놓다, 적어놓다	
대다(강제)	

떠들어 댄다 / 떠들어댄다
두다(보유)
알아 둔다 / 알아둔다
드리다(봉사)
읽어 드린다 / 읽어드린다
버리다(종결)
놓쳐 버렸다 / 놓쳐버렸다
보다(시행)
뛰어 본다, 썰 본다 / 뛰어본다, 썰본다
쌓다(강제)
올어 쌓는다 / 올어쌓는다
오다(진행)
참아 온다, 견뎌 온다 / 참아온다, 견뎌온다
지다(피동)
이루어진다, 썩진다, 예뻐진다

1)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2) 국립국어원 2020.01.15 > 해당 규정 본문에서는 ‘합성 용언’ 뒤에서만 보조 용언을 항상 띄어 쓰도록 하고 있으나, 합성 용언과 파생 용언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실제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파생어 뒤의 보조 용언도 띄어 쓰도록 해설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파생어인 ‘깨뜨리다’가 본문 조항에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개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원칙을 적용하여 파생어든 합성어든 보조 용언을 띄어서 쓰시는 것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 ‘-아/-어 지다’가 붙어서 타동사나 형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고 ‘-아/-어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 다만, ‘-아/-어 하다’가 구(句)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개정 해설 >

*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용언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니라 의존 명사와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예) 쫓아내 버렸다.(○) / 쫓아내버렸다.(×)
 매달아 놓는다.(○) / 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 / 집어넣어둔다.(×)
 파고들어 본다.(○) / 파고들어본다.(×)
 공부해 보아라.(○) / 공부해보아라.(×)

*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예) 나가 버렸다. / 나가버렸다.
 빛내 준다. / 빛내준다.
 구해 본다. / 구해본다.
 더해 줬다. / 더해줬다.

*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은 ‘직하다’ 한 가지이다.

예) 먹었음 직하다 / 먹었음직하다

시즌 1 10회 1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13)

- ① 내가 전에도 말했듯 저 앤 정말 공을 잘 차.
- ② 실제로 본 듯이 말하고 있다.
- ③ 오늘도 비가 내릴듯하다.
- ④ 돌탑이 무너질듯 말듯 위태로워 보인다.

시즌 1 23회 3번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14)

- ① 내가 보기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은 듯했다.
- ② 노느라고 집에 전화하는 것도 잊어먹었다.
- ③ 배가 고파 나머지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었다.
- ④ 그들은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먹었다.

시즌 2 41회 3번

띄어쓰기 규정의 허용 예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15)

- ㉠ 두시 삼십분 오초
 ㉡ 공부해보아라
 ㉢ 따뜻한구름
 ㉣ 비가 올 성싶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시즌 2 43회 3번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6)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 ① ‘직접 먹어도 보았다.’는 ㉠으로 인해 ‘직접 먹어도보았다.’로 쓸 수 없다.
- ② ‘떨어내 버렸다.’는 ㉡으로 인해 ‘떨어내버렸다.’로 쓸 수 없다.
- ③ ‘아이들이 떠들어만 댄다.’는 ㉢으로 인해 ‘아이들이 떠들어만댄다.’로 쓸 수 없다.
- ④ ‘잘난 체를 한다.’는 ㉢으로 인해 ‘잘난 체를한다.’로 쓸 수 없다.

67회 4번 [이론 문법 - 의미론 - 의미 관계]

시즌 1 9회 6번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17)

이 꽃은 진딧물은 꼬여도 별레 ㉠ 타는 법이 없다.

- ① 바람을 타고 연이 높이 날아 올랐다.
- ② 비위가 약한 그는 약을 물에 타서 먹었다.
- ③ 그녀는 타고 난 복도 달아나게 요망을 떨었다.
- ④ 몸이 허약한 할머니께서는 유난히 여름을 타셨다.

시즌 1 28회 14번

<보기>를 참고할 때, 두 말의 관계가 동음이의 관계가 아닌 것은?18)

- 동음이의어: 발음은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단어.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것
-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의미상 연관성은 있지만 두 의미가 분명히 다른 것

- ① 몸무게가 줄었다. / 재고가 줄었다.
- ② 옷에 흙이 묻는다. /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③ 벽의 도배지가 뜯다. / 금세 자리를 뜯다.
- ④ 방학 시간표를 짜다. / 깨의 기름을 짜다.

시즌 2 44회 3번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19)

- ㄱ. 그는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
- ㄴ. 강경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 ㄷ.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고 이야기를 나누셨다.
- ㄹ. 형에게 편지를 냈는데, 아직 답이 없다.
- ㅁ. 거래에서 흑자를 냈다.
- ㅂ. 그는 동료들에게 승진 기념으로 한턱을 냈다.

- ① ㄱ, ㄹ / ㄴ, ㅁ / ㄷ, ㅂ
- ② ㄱ, ㄴ / ㄷ, ㄹ / ㅁ, ㅂ
- ③ ㄱ, ㄹ / ㄴ, ㄷ / ㅁ, ㅂ
- ④ ㄱ, ㄴ / ㄹ, ㅁ / ㄷ, ㅂ

※ 독해 유사 유형 오답률 50% 미만 중 선정

70회 18번 [독해(비문학) - 비판 추론]

회차	번호	정답률	매력적 오답 선택률
51회	18	46.1%	22.7%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는 현재의 상태가 미래의 목적에 맞게끔 조정되고, 그런 식으로 현재가 미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목적론이다. 그러나 ‘결정된다’는 말을 인과법칙과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목적이든 그 실현 과정은 인과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명체에서도 현재의 모습은 미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청사진의 구현 과정에서 결정될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인과법칙과 상충하는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생명에 관한 목적론적 설명을 대체할 수 있다. 우연이 낳는 변화와 자연에 의한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진화를 설명한 다윈의 업적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론적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과법칙을 따르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단세포생물로부터 오랜 세월을 거쳐 고등 생물이 나타났 다.

- ① 개체 간의 차이는 환경 조건의 변화에 생명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② 자연의 우연적 변화에서 인과법칙과 모순되는 특별한 힘이 작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③ 다윈의 설명은 목적론적 설명을 대체하지만 인과법칙 이외에 목적론적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아무리 긴 시간이 주어져도 단순한 구조로부터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개체가 우연히 발생하기는 어렵다.

70회 12번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회차	번호	정답률	매력적 오답 선택률
61회	16	25.2%	30.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21)

생물 다양성, 곧 지구상 종의 수에 대한 추정치는 200만에서 1억까지 편차가 크다. 현재까지 과학 문헌에서 명명된 종의 수는 150만 개 정도이다. 이 중 한 가지 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명(異名)이 20% 정도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술지들에서 새로운 종의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지의 종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 곤충학자들은 해마다 7,000~8,000개씩 새로운 종을 만난다. 현재까지 그들이 과학 문헌에서 명명한 종만 해도 120만 개를 넘지만, 아직 새로운 종의 발견이 끝났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중형 저서생물의 경우에는 더하다. 중형 저서생물은 투명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진 벌레 같은 생명체로서, 모래 입자와 토양입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것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소수의 계통학자들만 그것들을 밝혀 과학 문헌에 명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 ① 중형 저서생물은 1960년대 이후 기록되기 시작했다.
- ② 과학 문헌에 기재된 종들 중 실제로 존재하는 종들의 수는 명명된 종들의 수보다 적다.
- ③ 명명된 종들 중에서 곤충이 아닌 나머지 생물 종들의 수는 곤충 종의 수보다 많지 않다.
- ④ 아직 명명되지 않은 중형 저서생물의 수는 아직 명명되지 않은 다른 생물 종들의 수보다 많다.

66회 16번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회차	번호	정답률	매력적 오답 선택률
35회	18	47%	20%

밑줄 친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22)

어떤 명제 P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다음의 세 조건이 충족되면 ‘P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P가 참이어야 한다. P가 거짓이라면 내가 그것을 사실로서 알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내가 P를 믿어야 한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P에 대한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에게서 그것을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계산상의 착오나 욕감, 꿈이나 정신착란 등에 의해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면 이 세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고, 역으로 이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는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수학 선생님이 선이에게 ‘0은 자연수이다’라고 해서 선이가 그것을 믿는데, 실은 수학 선생님이 선이에게 농담을 한 경우
- ② 석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이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 1번이 정답인 경우
- ③ 민이는 주사위가 3이 나오도록 조작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3이 나올 것이다’라고 믿는데,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자 3이 나온 경우
- ④ 경이는 경찰 복장의 남자를 보고 ‘골목에 경찰이 있다’고 믿는데, 경찰 복장의 남자는 영화배우이고, 그 골목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 경찰이 와 있는 경우

70회 7번 [독해(비문학) - 배치]

회차	번호	정답률	매력적 오답 선택률
14회	17	45.1%	42.2%
37회	5	39.3%	41.9%

다음 문장을 배치할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²³⁾

이것은 인간 중심의 도구적 이성이 자연을 비롯한 근대의 타자들을 억압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미학적 경향이다.

근대 문명의 발달에 따라 타자로 밀려나 있던 자연, 몸, 감각 등의 범주들이 시 속에서 제 목소리를 되찾고 있다. ① 이들은 문명, 정신, 이성을 중심으로 진보해 온 근대 기획에 의해 주변부로 물러나 있었다. ②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탈근대적 사유의 물결을 타고 시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③ 이 가운데,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의 차원에서 ‘스스로[自]’ ‘그리한[然]’ 존재라는 본래적 위상으로 되돌리려는 시적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시에서의 ‘생태적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④ 그만큼 생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시적 성취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비판 시학이자 대안 시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제시된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²⁴⁾

이는 달에 집중적으로 외계 물질의 유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거대 충돌설은 태양계 초기에 맨틀과 핵으로 분화한 원시 행성이 원시 지구와 충돌하여, 행성의 핵은 원시 지구로 흡수되고 나머지 암석 파편들이 지구 궤도상에서 재응집되어 달을 형성했다는 이론이다. ① 이 이론은 지구와 달 암석의 유사성 및 산소 동위원소 조성의 일치 등을 잘 설명하였으며, 기존 가설과 달리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재현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달에서 채취한 암석들에 KREEP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② 이 성분은 마그마에서 지각을 이루는 물질이 분리되고 남은 원소가 지각과 맨틀 사이에 모여 생성된다. ③ 그러므로 이것은 거대 충돌설에서 제안한 환경과 부합한다.

달 표면에 분포하는 충돌 분화구의 밀도를 분석하면 이들이 현재로부터 약 38억 년 전에서 40억 년 전 사이에 증가되는 특징이 관찰되는데, 이를 ‘마지막 대변혁’이라 부른다. ④ 그렇다면 이 시기를 경계로 지구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지구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거대 충돌설은 그 원인에 대해 아직 까지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공무원 국어의 새 기준_이유진 국어

71회 18번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어부단가 전문 분석

이 중에 시름없으니[이렇게 한가하게 사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이것이 바로(근심 걱정 없는 이러한 삶이 바로) 어부의 삶이로다] ▶ ‘어부의 생애’를 통해 화자가 ‘어부’로서 본 글에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작품 어디에서도 어부의 구체적인 생활을 -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고자 애쓰는 구체적인 모습을 - 확인할 수는 없기에, ‘어부로서의 화자’가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진짜 어부’는 아닐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나뭇잎 같은, 작은 배 한 척을]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넓은 바다 물결 위에 띄워 놓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속된 세상을 다 잊었으니] ▶ 물결이 거세게 치는 드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 위에서 ‘속된 세상을 잊은 화자의 한가함’을 엿볼 수 있기에, 본 대목의 ‘만경파’와 관련하여, “화자는 ‘만경파’에서 삶의 위태로움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날 가는 줄을 알라[시간이 흐르는 줄을 어찌 알겠느냐] ▶ 작은 배 위에 한가로이 앉아 혹은 누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만족적’ 혹은 ‘자기충족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연상할 수 있기에, 본 대목과 관련하여, “화자는 ‘일엽편주’를 타고 쓸쓸한 처지를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구나’라는 의미를, 질문을 던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알라’) 보여주고 있기에 본 대목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흘러가는 배에 고요히 몸을 맡긴 채) 푸른 물을 굽어보니 그 깊이가 무척이나 깊고] 돌아보면 만첩청산(萬疊靑山)[뒤를 돌아보니(떠나온 곳을 돌아보니) 푸른 산이 첩첩이 겹쳐 있구나] ▶ ‘녹수’와 ‘청산’이 이야기하는 푸른색의(초록색의) 시각 이미지가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화자가 처해 있는 자연 속 삶을 맑고 깨끗하게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십장(十丈) 홍진(紅塵)*이[사람 키의 열배나 되는 두께의(‘십장’) 붉은 먼지가(‘홍진’이)] [만첩 청산에 의해] 얼마나 가렸는고[얼마나 가려졌는고] → 십장 홍진이 만첩 청산에 의해 참으로 두텁게 잘 가려져 있구나 ▶ ‘붉은 먼지’를 의미하는 ‘홍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세상만사가 겹겹이 깔려 있는,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첩청산(산이 첩첩이 쌓인 모습)’은, 화자가 배를 띄워놓고 있는 ‘이쪽의 한가한 세계’와, 화자가 현재 속해 있지 않은 ‘저쪽의 속세’를, 단절시키는 고마운 기능을 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렸는고’에는 ‘속세가 잘 가려져서 참으로 다행이구나’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기에, ‘만첩청산’과 관련하여,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보며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강과 호수에 하얀 달이 뜨니] ▶ ‘월백’에서 비롯되는 ‘흰색’의 시각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맑고 깨끗한 인상이 잘 연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무심(無心)하여라[더욱 속된 욕심이 없어지는구나] ▶ ‘하얀 달이 뜬 강호’는 맑고 순수하며 한가한 자연 세계를 의미하는 까닭에,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의미하는 종장의 ‘십장 홍진’과 공간적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목에 기초하여, 본 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성격을 띤 공간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심하여라(속된 욕심이 없어지는구나)’를 통해, 화자가 ‘월백’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바가, ‘인생의 헛됨’이 아닌, ‘인생의 홀가분함’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본 대목과 관련하여, “화자는 ‘월백’한 풍경에서 인생무상을(인생의 헛됨을)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본 연을 마무리함에 있어(시상을 집약함에 있어) 화자가 평이하게 ‘더욱 무심하다’라고 하지 않고, ‘더욱 무심하여라’라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안(長安)을 돌아보니[나라의 수도인 서울 쪽을 돌아보니(서울 쪽을 생각해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임금님이 계신 궁궐이 여기로부터 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 ‘천리’라는 수(數) 표현을 통해, 화자가 속세와 느끼는 거리감이 무척이나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서울을 가리키는 ‘장안’은 분명 맑고 한가한 자연 공간인 ‘강호’와는(2연 3행 참고) 대조되는 공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홍진’을 벗어나 맑고 한가한 세계에 있으면서도, 속세의 공간인 ‘장안을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아직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내가 비록 배 위에 이렇게 누워있을지라도] 잊은 때가 있으랴[임금님과 나랏일을 잊은 때가 있겠느냐] ▶ 본 행이 ‘배 위에 누워 있다 해도 언제나 임금과 나랏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잊은 때가 있으랴’는, 앞의 ‘장안을 돌아보니’와 함께, 화자가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두어라[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 ‘두어라’는 고전 시가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달랠 때’ 영탄조로 종종 하는 말입니다] 내 시름 아니라[임금님과 나랏일에 대한 걱정은] 내 걱정이 아닐 것이로다]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내가 아니라고 해서)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가 없을 것인가] ▶ ‘제세현이 있을 것이니, 굳이 내가 세상 일 때문에 시름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의 의미이기에, 본 대목과 관련하여, “화자는 ‘제세현’을 떠올려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 * 홍진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북궐 : 임금님 계신 경복궁의 다른 이름.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이 자료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더하여,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공무원 국어의 새 기준_이유진 국어

1)

공동 / 공통 / 공동 / 공동(共同) / 공통(共通)
② 허용(許容) ③ 종식(終熄) ④ 예방(禮訪)

2)

裁 마를 재, 判 판단할 판
裁 심을 재
辯 말쑤 변, 護 도울 호, 士 선비 사
判 판단할 판, 事 일 사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 事 일 사

監事 감사, 刑事 형사, 知事 지사, 理事 이사

* 士 선비 사

博士 박사, 碩士 석사, 學士 학사, 辯護士 변호사,
義士 의사, 烈士 열사, 軍士 군사, 兵士 병사, 武士 무사

* 師 스승 사

教師 교사, 講師 강사, 醫師 의사, 看護師 간호사,
藥師 약사, 料理師 요리사, 美容師 미용사

3)

恰似(흡사)하다 -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
近似(근사)하다 - 어떤 수치가 기준에 가깝거나 아주 비슷하다.
나는 그와 친형제처럼 親密(친밀) / 親近(친근) / 緊密(긴밀)하다 -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
둘은 臨迫(임박)한 장래에 결혼할 사이다.

4) [어휘 - 한자어 - 다의어] ▶ ③

‘보다’, ‘닭다’, ‘다지다’라는 세 단어의 사전 풀이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基礎(기초)’는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를 의미하는데, ‘판단의 기초로 삼다’, ‘기초를 마련하다’, ‘기초나 터전을 튼튼하게 하다’로 쓰일 수 있다.

基礎(기초):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

基 터 기, 礎 주춧돌 초

[오답해설]

① 模範(모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模 법 모, 範 법 범

② 準據(준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④ 基準(기준): 기본이 되는 표준

基 터 기, 準 법도 준

5) [어휘 - 문맥상 적절한 한자어] ▶ ②

① 統制(통제)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약하는 일’이며, 抑制(억제)란 ‘억눌러서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약이므로 統制(통제)가 적절하다.

統 거느릴 통, 制 절제할 제

抑 누를 억, 制 절제할 제

③ 止揚(지양)이란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志向(지향)은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志向(지향)이 적절하다.

止 그칠 지, 揚 날릴 양

志 뜻 지, 向 향할 향

⑤ 分離(분리)란 ‘서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이며, 分化(분화)는 ‘단순·등질적인 것이 복잡·이질적인 것으로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조직·기능은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分化(분화)가 적절하다.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이)

分 나눌 분, 化 될 화

6) [어휘 - 문맥상 의미(한자어)] ▶ ③

‘認識(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라는 의미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수신자의 사고 작용에 의해 이해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受容(수용)’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

• 受容(받을 수, 얼굴 용)

‘1’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근대 문명 수용 / 핵 사찰 수용 / 전통 예술의 현대적 수용

‘2’ 감상(鑑賞)의 기초를 이루는 작용으로, 예술 작품 따위를 감성으로 받아들여 즐김.

• 認識(알 인, 알 식)

‘1’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인식이 높다. / 인식이 부족하다. / 인식이 바뀌다.

‘2’ 『심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 인지 [오답해설]

① 許容(허락할 허, 얼굴 용):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 용허

| 허용 기준 / 외출 허용

② 容認(얼굴 용, 알 인): 용납하여 인정함. ≒ 인용(認容)

④ 認定(알 인, 정할 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 소유권 인정 / 자치 의회의 입법권 인정 여부를 협상하다. / 나는 그의 성실성만은 인정을 해 주고 싶어.

7) [어휘 - 한자어 - 문맥적 의미] ▶ ②

‘낡거나 헛 물건을 고침.’이라는 의미를 갖는 ‘修繕(수선)’에 대응된다.

修 닦을 수, 繕 고칠 선

交換(교환): 서로 바꿈.

交 사귄 교, 換 바꿀 환

[오답해설]

①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침.’이라는 의미를 갖는 ‘改良(개량)’에 대응된다.

改 고칠 개, 良 어질 량(양)

③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矯正(교정)’에 대응된다.

矯 바로잡을 교, 正 바를 정

④ ‘계획을 고친’의 ‘고치다’는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의 의미를 가진 ‘變更(변경)’과 대응될 수 있다.

變 변환 변, 更 고칠 경

이 자료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더하여,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공무원 국어의 새 기준_이유진 국어

8) [어휘 - 한자어 - 동음이의어] ▶ ④

㉠, ㉡과 같은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적 의미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문맥적 의미란 사전적 의미가 같은 단어라도 그것이 쓰인 전후 상황, 곧 문맥에 따라 의미가 새롭게 확장되는 경우를 뜻한다. 문맥상 ㉠은 '나쁜 감정'이며,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성'의 반대 측면인 '감정'을 말한다.

㉠ 憾情(감정): 원망하거나 성내는 마음.

憾 한할 감, 情 뜻 정

㉡ 感情(감정):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感 느낄 감, 情 뜻 정

[오답해설]

鑑定(감정):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減定(감정): 양이나 수를 줄여 결정함.

減 덜 감, 定 정할 정

勘定(감정): 헤아려 정함.

勘 정할 감, 定 정할 정

9) [어휘 - 한자어] ▶ ④

削除(삭제)하다: 「1」 깎아 없애거나 지워 버리다.

「2」 화면(畫面)에 표시된 문자를 지우다. 또는 파일 내에 저장된 기록을 제거하거나 기억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지우다.

削 깎을 삭, 除 덜 제

| 꾸미다

- 치장(治粧)하다: 잘 매만져 곱게 꾸미다.
治 다스릴 치, 粧 단장할 장
- 장식(裝飾)하다: 「1」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하다.
「2」 어떤 장면이나 부분 따위를 인상 깊고 의의 있게 만들다.
裝 꾸밀 장, 飾 꾸밀 식
- 조작(造作)하다: 「1」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들다.
「2」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들다.
「3」 지어서 만들다.
造 지을 조, 作 지을 작

| 바꾸다

- 교체(交替)하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신하다.
交 사귈 교, 替 바꿀 체
- 교환(交換)하다: 서로 바꾸다.
交 사귈 교, 換 바꿀 환
- 대체(代替)하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
代 대신할 대, 替 바꿀 체

10) [어휘 - 한자 + 문맥적 의미] ▶ ②

제시된 문장 중에는 '말씀씨나 말재주'의 뜻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言辯(언변)'은 활용할 수 없다.

言辯(언변):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口辯(구변)

言 말씀 언, 辯 말 잘할 변

[오답해설]

- 그는 재판에서 친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말했다.

證言(증언):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런 말.

證 증거 증, 言 말씀 언

- 타협할 생각도 없이 협상을 하자는 말입니까?

妄言(망언):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 말.

妄 망령될 망, 言 말씀 언

- 이게 아니다 싶으면 상대가 누구든 말을 하고야 만다.

直言(직언):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直 곧을 직, 言 말씀 언

11) [어휘 - 한자] ▶ ④

문맥에는 '지나치지 않다'라는 표현에 필요한 '過言(과언)'이 적절하다.

添言(첨언): 덧붙여 말함.

添 더할 첨, 言 말씀 언

過言(과언): 지나치게 말을 함. 또는 그 말.

過 지날 과, 言 말씀 언

[오답해설]

① 圓滿(원만): 「1」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러움.

「2」 일의 진행이 순조로움.

「3」 서로 사이가 좋음.

圓 둥글 원, 滿 찰 만

懸隔(현격):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음. 또는 차이가 매우 심함.

懸 달 현, 隔 사이 뜰 격

② 體制(체제): 「1」 생기거나 이루어진 틀. 또는 그런 됴됨이. =체제.

「2」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에,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

「3」 일정한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 질서의 전체적 경향.

「4」 생물체 구조의 기본 형식. 몸체 각 부분의 분화 상태 및 상호 관계를 이른다.

「5」 각 부분이 목적에 맞도록 유기적으로 통일된 전체.

體 몸 체, 制 절제할 제/지을 제

行態(행태): 행동하는 양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行 다닐 행, 態 모양 태

③ 支援(지원): 지지하여 도움.

支 지탱할 지, 援 도울 원

支持(지지): 「1」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씀. 또는 그 원조.

「2」 무거운 물건을 받치거나 버팀.

「3」 주가 하락이 매입 세력에 의하여 어느 선에서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는 일.

支 지탱할 지, 持 가질 지

持續(지속):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

持 가질 지, 續 이을 속

12)

복합어, 파생어, 2

'되어 가는 듯하다'가 원칙이고, '되어가는 듯하다'가 허용된다.

13)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④

이 자료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더하여,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공무원 국어의 새 기준_이유진 국어

‘-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경우 의존 명사 ‘듯’이므로 앞 말에 띄어 쓴다.

[오답해설]

①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경우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의 ‘말했듯’은 ‘말하였듯이’의 준말이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뒤에 ‘듯이’가 와서,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②의 ‘듯이’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본’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듯하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의존 명사 ‘듯’과 접사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보조 형용사는 앞의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단,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파생어인 경우, 그리고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제외한다.

| ‘듯’의 품사 통용

-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오는 ‘듯’은 의존 명사
| 갈 듯도 하다.
- ‘듯 + -하다’는 보조 형용사
| 갈 듯하다.
- 용언의 어간 다음에 오는 ‘-듯’은 어미
| 변덕이 죽 끓듯 하다.

14)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③

‘과자를 집어서 먹었다’처럼 쓸 수 있고 ‘과자를 집다’와 ‘과자를 먹다’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두 용언은 ‘본용언 + 본용언’의 관계이다. 따라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해설]

① ‘집, 두려움 따위를 가지게 되다.’의 의미인 ‘집어먹다’는 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었으므로 붙여 쓴다.

집어먹다 [···을]

「1」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듦다.

| 공금을 집어먹다.

서로 집어먹으려고 대드는 판에 이용당하는 척 슬쩍 눈웃음을 쳤다.

「비슷한말」 집어삼키다

「2」 겁, 두려움 따위를 가지게 되다.

| 겁을 집어먹다.

온순한 이 청년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② ‘전화하는 것을 잊었다’는 말이 되지만 ‘전화하는 것을 먹었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용언은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보조적 연결 어미로 ‘-어’를 활용하였으니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④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다’는 말이 되지만 ‘사실을 새까맣게 먹었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용언은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보조적 연결 어미로 ‘-어’를 활용하였으니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복합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어지다’, ‘-어하다’는 보조 용언이지만 붙여 쓴다.

15)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②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시간인 경우에도 ‘두시 삼십분 오초’로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시간의 흐름은 붙여 쓸 수 없다.

㉔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 주는 구조,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도 붙여 쓸 수 있다.

따뜻한 구름: <지리> 온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구름.

| 한글 맞춤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한편 전문 용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띄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된 고전 책명은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거나, 구(句)라고 하더라도 띄어 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의 고전 또는 현대 책명이나 작품명은 구와 문장 형식인 경우 단어별로 띄어 쓴다.

| 분류두공부시언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한문 고전 책명)
베니스의 상인(서양의 고전 작품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서양의 현대 작품명)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 주는 구조,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도 붙여 쓸 수 있다.

| 따뜻한 구름 / 따뜻한구름, 강조의 허위 / 강조의허위

한편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 자음 동화와 모음 동화 / 자음동화와 모음동화

[오답해설]

㉔, ㉕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따라서, ‘비가 올 성싶다.’의 경우 원칙에 따른 것이며, ‘비가 올성싶다.’로 쓰면 허용을 따른 것이다. ‘성싶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공무원 국어의 새 기준_이유진 국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파생어인 ‘공부하다’를 본용언으로 삼는 ‘공부해 보아라’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복합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보조 용언이 거둬지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어지다’, ‘-어하다’는 보조 용언이지만 붙여 쓴다.

16)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③

‘떠들어만 댄다’는 본용언에 보조사 ‘만’이 붙어 있으므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과 붙여 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으로 인해 붙여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으로 인해 붙여 쓸 수 없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직접 먹어도 보았다’의 본용언은 ‘먹어도’이다. 용언 ‘먹어’에 조사 ‘도’가 결합하였으므로 ㉠으로 인해 붙여 쓸 수 없다.

② ‘밀어내 버렸다’의 본용언 ‘밀어내다’는 ‘힘이나 압력을 가하여 물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합성 동사이다. 따라서 ㉠으로 인해 ‘밀어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없다.

④ ‘체’는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며, ‘체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체를 한다’는 중간에 조사 ‘를’이 들어갔기 때문에 ㉠으로 인해 ‘체를한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없다.

| 한글 맞춤법 제47항 규정 예시 보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1) ‘본용언 + -아/-어 + 보조 용언’ 구성
|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 (2) ‘관형사형 + 보조 용언(의존 명사 + -하다/싶다)’ 구성
|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다만, ㉠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놀아만 나는구나! / 읽어도 보고……. / 먹어도 보았다. / 읽어 보았다.

㉠ 덤벼들어 보아라. / 쫓아내 버렸다. / 매달아 놓는다. / 집어 넣어 둔다. / 파고들어 본다.

㉠ 울 듯도 하다. / 잘난 체를 한다. / 읽은 체를 한다. / 겨를 만든 하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 나가 버렸다. / 나가버렸다. 빛내 준다. / 빛내준다.
구해 본다. / 구해본다. 더해 줬다. / 더해줬다.

그리고 보조 용언이 거둬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 적어 둘 만하다. / 적어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 읽어볼 만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 되어가는 듯하다.

17) [이론 문법 - 의미론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 ④

㉠과 ㉣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타다’는 ‘몸에 독한 기운 따위의 자극을 쉽게 받다.’의 의미로, ㉣의 ‘타다’는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타다⁷「1」: 몸에 독한 기운 따위의 자극을 쉽게 받다.

| 옷을 타다.

타다⁷「3」: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

| 가을을 타다.

[오답해설]

① 타다⁷「3」: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② 타다⁸: 다량의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넣어 섞다.

| 커피를 타다.

③ 타다⁴「2」: 【…을】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복을 타다.

18) [이론 문법 - 의미론 -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 ①

‘몸무게가 줄다’의 ‘줄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작아지다.’라는 의미, ‘재고가 줄다’의 ‘줄다’는 ‘수나 분량이 본디보다 적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두 단어는 서로 의미적 연관성이 있어 다의어(多義語)에 해당한다.

[오답해설]

② ‘물다’는 앞의 것은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라는 의미, 뒤의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③ ‘뜨다’는 앞의 것은 ‘작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기다.’라는 의미, 뒤의 것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짜다’는 앞의 것은 ‘계획이나 일정 따위를 세우다.’라는 의미, 뒤의 것은 ‘누르거나 비틀어서 물기나 기름 따위를 빼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 [이론 문법 - 의미론 - 다의어] ▶ ①

제시된 예문의 ‘내다’가 가진 의미는 다음 세 가지이다.

-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내다.
-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을 이루어 드러내다.
-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대접하려고 제공하다.

ㄱ, ㄷ: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내다.

ㄴ, ㄹ: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을 이루어 드

이 자료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를 금합니다.

더하여,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공무원 국어의 새 기준_이유진 국어

려내다.

ㄷ, ㅂ: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대접하려고 제공하다.

ㅣ ‘내다’의 다른 의미들-

- ‘돈을 얻다.’라는 의미의 ‘내다’는 ‘은행에서 빚을 내다.’와 같은 경우에서 사용된다.
- ‘안에서 밖으로 옮기다.’라는 의미의 ‘내다’는 ‘방에 있던 책상을 마루에 내다.’와 같은 경우에서 사용된다.
- ‘곡식이나 음식을 따위를 팔려고 내놓다.’라는 의미의 ‘내다’는 ‘시장에 쌀을 내다.’와 같은 경우에서 사용된다.
- ‘다른 사람의 모양이나 행동을 따라 하다.’라는 의미의 ‘내다’는 ‘시늉을 내다.’와 같은 경우에서 사용된다.

20) [독해(비문학) - 비판 추론] ▶ ④

지문은 목적론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따르면, 목적론적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이 낳는 변화와 자연에 의한 선택에 의해 생명체가 진화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지문의 주장이 목적론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 된다.

이에 부합하는 것은 ④이다. 지문에서는 인과법칙과 상충하는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다윈의 이론을 통해 목적론적 설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긴 시간이 주어져도 단순한 구조로부터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개체로 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문의 논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오답해설]

- ① 개체 간의 차이가 생명체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지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문에 대한 비판이라 보기 어렵다.
- ② 자연의 우연적 변화에서 인과법칙과 모순되는 특별한 힘이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지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므로, 적절한 비판이라 보기 어렵다.
- ③ 다윈의 설명이 목적론적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지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21)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④

지문에 따르면, 1960년대 이전까지 중형 저서생물의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늘날에도 소수의 학자들만이 이를 명명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중형 저서생물의 수가 적을 것임을 추론할 수는 있으나, 아직 명명되지 않은 중형 저서생물의 수가 아직 명명되지 않은 다른 생물 종들의 수보다 많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해설]

- ① 중형 저서생물은 1960년대 이전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1960년대 이후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명명된 종은 150만 개 정도이지만, 이 중 한 가지 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이 20%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종들의 수는 명명된 150만 개 종의 수보다 적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명명된 종은 150만 개 정도이며, 명명된 곤충 종은 120만 개를 넘는다고 한다. 따라서 곤충이 아닌 나머지 생물 종은 약 30만 개 정도이므로 그 수가 곤충 종의 수보다 많지 않다.

22)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 ④

밀줄 친 주장은 주어진 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아는데도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혹은 세 조건이 충족됨에도 그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를 제시한다면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④이다. 경찰 복장의 남자를 보고 ‘골목에 경찰이 있다’고 믿었다면 둘째 조건과 셋째 조건이 충족되며, 실제로 경찰이 와 있으므로 첫째 조건도 충족된다. 그런데 경이는 실제로 영화배우인 경찰 복장의 남자를 본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 ‘골목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세 조건이 충족됨에도 그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첫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며, 실제로 선이가 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밀줄 친 주장의 반박 사례로 볼 수 없다.
- ② 꿈을 통해 정답을 믿는 것은 타당한 이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셋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이며, 실제로 식이가 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밀줄 친 주장의 반박 사례로 볼 수 없다.
- ③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며, 실제로 민이가 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밀줄 친 주장의 반박 사례로 볼 수 없다.

23) [독해(비문학) - 배치] ▶ ④

제시된 문장의 지시어인 ‘이것’은 ‘반성에서 비롯된 미학적 경향’이라고 하였으므로 제시된 문장 앞에는 반성할 내용과 반성의 동기가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 몸, 감각 등이 근대의 타자로 밀려났다는 사실이 제시된 후 탈근대적 사유의 물결을 타고 ‘자연’을 본래적 위상으로 되돌리려는 시적 움직임(‘생태적 상상력’의 발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제시된 내용(배치할 내용)] 앞에 와야 한다. 또한 ‘이것’이 반성에서 비롯된 미학적 경향이라는 내용이 제시된 후, 이를 바탕으로 ‘비판 시학이자 대안 시학’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독해(비문학) - 배치] ▶ ④

지문은 달의 기원에 대한 가설인 ‘거대 충돌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시된 문장 앞에는 달에 외계 물질의 유입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위치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위치는 ④이다. ④의 앞에는 달 표면에 분포하는 충돌 분화구가 약 38억 년 전에서 40억 년 전 사이에 증가하는 특징이 관찰된다는 내용이다. 충돌 분화구의 밀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달에 무언가가 많이 충돌하였다는 뜻이므로 달에 집중적으로 외계 물질의 유입이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